계가 50% 정도이며 운수업계는 4.2% 만이 의무실이 있었다.

9) 의무실요원은 전임의사 요원을 둔 곳이 20.3%, 시간제 의사와 요원을 둔 곳이 2.6%, 간호사만 있는 경우가 4.1%, 보조원만 있는 곳이 18.0% 였고, 나머지 55.0% 가 사무겸직이었다.

10) 산업장의 직원수와 의무실 유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어서 ($p < 0.001$) 직원수가 많은 대규모의 산업장일수록 의무실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았다.

11) 산업장 직원수와 의무실요원 배치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어서($p < 0.01$) 직원수가 많은 대규모의 산업장일수록 근로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의무실 요원을 배치하고 있었다.

제 특성에 따른 산업장 공상사고와 간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제15권 제4호, 1976

최 경 숙

본 연구는 경북주재 모 섬유기업을 중심으로 작업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제반자료를 1974년과 1975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

1. 공상 발생율과 보고된 무상해 공상비율

1) 과별 공상비율은 방적과가 가장 높았는데 과 전인원에 대한 발생율은 평균 발생율보다 오히려 낮았다. 과 전인원에 대한 발생율이 높았던 과는 방모과와 정비과였다.

연도별로는 74년에 비해 75년이 전체적인 공상율이 현저히 감소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방모과, 직포과, 가공과는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근무기간별 공상발생은 대체적으로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공상율도 현저히 높았고 연령별 발생율은 26~30세군에서 가장 높았다.

2) 공상 건수에 대한 무상해 보고건수의 비는 본자료에서는 전체적으로 낮은 비를 보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무상해 사고가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제 특성별 공상자 분포

1) 공상 발생비율은 대부분 저 연령군에서 (25세 이하) 높았으나 75년 남자의 경우 31세 이상에서 높았고 외상과 골절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상이 낮은 연령군에서 발생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상사고율은 감소현상을 보였다.

2) 공상자의 분포는 계절에 의한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으나 근소한 차로 남자는 봄에, 여자는 가을에 약간 높게 나타났다.

3) 대부분의 공상자가 근무기간이 짧은 1년 미만이나 2~3년에서 발생되었고 근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 근무요일별로는 요일별로 뚜렷한 발생비율을 나타내지는 않으나 남자는 2년 모두 목요일에 사고율이 비교적 높았는데 비하여, 여자는 '74년에는 월요일, '75년에는 금요일에 각각 사고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5) 근무 교대별로는 남자는 야간 발생비율이 낮았는데 비해 여자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본적으로 여자의 육체적 조건이 야간근무가 무리되는 것인지 원인분석이 필요로 되며, 동시에 야간근무자의 정신적 근무상태를 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급식장에서의 영양공급 문제와 충분히 숙면할 수 있는 기숙사 환경조성에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6) 공상원인의 90% 이상이 근로자의 불안정행동으로 초래된 사고였고 이중 본인 부주의에 의한 것이 상호부주의나 타인 부주의에 의한 것보다 현저히 높았다.

불안정 행동으로 인한 공상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군은 16~20세 군이었고 근무기간별로는 대부분 5년 미만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특히 1년 미만자에게서 높았다.

과별로는 방적과와 소모과가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3. 제 특성별 공상 빈도 분포

1) 공상의 원인은 관리자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기계가동중에 인체접촉을 함으로써 일어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불안정 행동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공상을 입는 공상자는 대부분이 기계작동중에 소재, 각종 티끌제거 이상유무검사 조정 수리 등을 하려다 발생된 것으로 안전관리 위원회에서는 여하한 경우라도 기계가동 중에는 인체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수칙상으로 명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순간적인 판단과오나 부주의로 무의식적으로 가동중 기계에 접촉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사고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부위별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상지사고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불가항력이나 불안전 설비에 의한 것 즉 작업자의 부주의 이외의 사고는 8.5% 밖에 없었다.

2) 이 기업에서 가장 손상을 많이 받는 부위로 나타난 것은 신체의 각 부위 중 상지였다. 상지 중에서도 수지부위가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16~20세에서 가장 사고 빈도가 높았고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상지사고율과 기타사고율도 높게 나타났고 방적과, 소모과, 가공과에서 특히 상지사고율이 높았는데 이중 여자사고율이 현저히 높았다. 그 까닭은 이 과들의 작업특징에 관계되는 것으로 실만드는 과정에서 주로 수지를 사용하며 조업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방적과 인원은 거의 대다수가 여성근로자이다.

4. 근무기간 및 공상명, 공상빈도 분포

가장 빈도가 높은 상해양상은 외상이었고 골절도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였다. 외상 사고중에는 좌창과 좌멸창이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했고 외상은 '74년에 비해 '75년에 약 20 % 정도 감소된 경향을 보였고 골절은 10 % 정도 증가된 경향을 나타내었고 비교적 방적과와 소모과에서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외 공상은 두드러진 증감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산업장 건강관리실의 건강관리 실태조사 연구

김천간전 논문집 제5집, pp.93~107, 1977

최 경 숙

1977년 7월 대구에 소재하는 모 섬유기업체에서 생산에 관여하는 근로자의 약 20 % (160명)을 대상으로 배표법을 사용하여 산업장 건강관리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속성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는 약 70 % 가 남성이었다. 연령별에 있어서는 종업원의 80 % 이상이 생산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20세~30세에 속하고 있다.

결혼상태는 미혼보다 기혼이 약간 많았고 약 과반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가치관 및 건강관리

1)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가치관은 아주 높았다. 성별이나, 교육정도,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 60 % 이상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데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개인위생 및 건강문제 해결방안

(1) 작업후나 식사전, 외출에서 돌아 왔을 때 근로자들의 손 씻는 습성은 약 1/3정도가 습성화 되어 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은 그것이 습성화 되어 있지 않았다.

(2) 감기나, 소화불량등 가벼운 건강이상을 느꼈을 때 대다수(81.3 %)의 근로자들은 약국에서 약을 사먹고 있었고 기업측의 여러가지 배려에도 불구하고 병원(건강관리실 포함)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은 극히 적었다.

3. 건강관리실 이용정도